

코로나19 위기 속 식품외식산업 전망은?

aT, 26일 '전망대회' 온라인 개최... 내년도 글로벌 트렌드·산업 동향 등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오는 11월 26일에 식품·외식산업이 당면한 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2021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이하 전망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망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속 신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하여 'The Next Food'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튜브, 네이버TV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송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1부 기조강연은 세계적인 식품시장 조사기관인 이노바마켓 인사이트의 대표 패트릭매니언(Patrick Mannion)이 '글로벌 식품트렌드 전망'을 주제로 10가지 핵심 키워드로 2021년도 세계 식품 트렌드를 전망할 예정이다.

2부 주제별 강연에서는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분야의 전문 연사가 산업 트렌드 전망과 내수·수출 전략, 비즈니스 노하우 등 식품·외식기업의 미래 사업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한다.

국내 유명 베스트셀러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 김난도 교수와 식품트렌드 전문가 문정훈 교수가 식품·외식 시장의 소비트렌드를 전망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박사와 한국외식정보의 유주희 국장이 2021년도

산업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전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짜파구리' 제조사 농심의 이용재 전무와 중국시장에서 호실적을 올리고 있는 서래스터의 서강현 팀장, 선도 IT기업 구글의 조영민 매니저와 국내 대표 식음료 O2O서비스 식신의 안병익 대표가 연사로 나선다.

한편, 팜낭팡팡 부부도 사랑받고 있는 개그맨이자 유명 유튜브인 홍윤화, 김민기가 이번 전망대회의 홍보대사로 나서 전망대회의 주요 강연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aT 이병호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식품·외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전망대회를 통해 식품·외식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정보와 지식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는 행사 당일 aT 공식 유튜브채널(youtube.com/user/aTwebTV)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강연 연사들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사전 참가 접수는 22일까지 aT 홈페이지(www.at.or.kr)를 통해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전개공, 공무직 보훈특별 인재 채용

3명으로 전원 지역인재

원서접수는 20일부터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2020년 공무직 및 보훈특별채용으로 직원 3명 전원을 지역인재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북도가 100% 자본금을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 내 실업을 해소 및 청년고용에 일조하기 위해 전북 출신 인재(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북도인 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하였다.

특히, 이번 채용은 법정무고용을 준수하고자 보훈대상자(행정직) 1명과 장애인(환경미화직) 1명을 채용하며, 시설관리직 1명은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를 채용한다.

원서접수는 20일부터 27일까지이며, 이후 인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기타 자세한 채용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bd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도입하여 성별, 학력, 연령(단, 60세이하)에 제한없이 지역 인재를 지속 선발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에 힘써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전북도, 전북TP와 함께 전주시 팔복동에 소재한 '전주스마트공장배우터'에서 '스마트제조혁신협의회'를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조업 분야 혁신기반 조성·중기 경쟁력 강화

전북중기청, 도·TP와 '스마트제조혁신협의회' 열고 방안 모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전라북도, 전북TP와 함께 전주시 팔복동에 소재한 '전주스마트공장배우터'에서 '스마트제조혁신협의회'를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협의회'는 전북지역의 제조업 분야의 혁신기반 조성 및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 한해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해결 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까지 전국 3만개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까지 국비와 도비 지원을 통해 307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했고, 올해는 122개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박차를 가해 왔다.

안남우 전북중기청장은 "스마트공장은 제조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므로, 유관기관들의 특성을 연계하여 지원한다면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중소벤처기업 비대면 업무 효율성 제고

전북중기청, '공동활동 화상회의실' 수요기관 선정

구축 비용 전액 국비로 개소당 1200만원 이내로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과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는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활동 화상회의실 구축 사업'의 수요기관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 내 수요기관을 선정해 화상 회의 장비 구축, 국산 SW 솔루션 구입, 스마트워크 부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해 원격근무 확산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1차로 37개 기관(일반형 63개소 및 스마트워크부스 3개소)을 이번에 선정했으며, 2차 선정작업이 현재 진행중인바, 전북 도내에 75개소 구축을 목표로 중소벤처기업에게 상시 개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축 비용은 전액 국비로 개소당

1,2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선정 기관 중 3개소는 1~2인실용 별도 공간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스마트워크 부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화상회의실 구축을 통해 코로나19로 비즈니스 활동이 어려워진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온라인 원격근무 등 비대면 업무 분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남우 청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비대면 중심으로 급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이 비대면 경제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우수자문위원 감사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7일, 2020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상담실적과 만족도가 우수한 12명(분야별 7명, 권역별 5명)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법률 분쟁·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소재 법무법인 청률, 서울 소재 법무법인 해울과 분쟁·소송지원 지정법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선 경영지원단 운영위원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법률·노무·세무 등 애로해소를 위해 상담자문하고 있는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자문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뽕나무·블루베리 전정 가지 이용 흰점박이꽃무지 사육기술 개발

전북농기원, 꽃병이 가공식품 상표등록 출원

시제품 제작 완료... 20일 농진청서 테스트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베리류(뽕나무, 복분자, 블루베리)의 전정 가지를 이용해 흰점박이꽃무지(꽃병이) 사육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먹이로 생산된 꽃병이가 가공식품에 대한 상표등록 출원과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으며, 오는 20일 농진청시험장에서 시제품에 대한 소비자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표등록 출원을 하고, 제작된 시제품은 잠사곤충시험장에서 2017년부터 4년간 연구한 결과로 개발된 베리류 3가지를 혼합 발효한 베리류발효톱밥을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의 먹이로 공급하고, 생산된 꽃병이로 만든 가공식품으로써 소비자 테스트를 통해 기존의 참나무톱밥을 먹이로 생산된 꽃병이로 만든 가공식품과 비교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된 시제품은 간식용 에너지바의 형태로 국내산 잡곡으로 만들어진 시리얼바에 베리류 3가지의 각각의 열매(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분말가루를 첨가해 각각의 맛과 혼합한 맛을 더해 4가지로 생산하여 선보일 예정으로 보다 기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개발된 베리류발효톱밥을 먹인 꽃병이가 참나무발효톱밥으로 키운 꽃병이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단백질 및 칼륨, 아연 등 무기질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총폴리페놀 함량은 1.9배(9.83 mg/g) 이상 높은 것으로 이미 분석되었다.

전복은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등 베리류 작목의 주 재배지역으로

전국 재배면적의 50% 이상(3,024ha)을 점유하고 있어 흰점박이꽃무지 먹이원으로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동안 버려지던 베리류 전정 가지를 활용하여 도내 베리류 재배농가에도 부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흰점박이꽃무지 사육농가에도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흰점박이꽃무지(꽃병이)는 전북 전체 식용곤충 생산 농가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식용곤충에 대한 소비자들의 혐오감 등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판로 개척이 쉽지 않고, 경영비 중 꽃병이의 주된 먹이인 참나무톱밥 구입 비용이 30% 이상을 차지하며, 대부분 강원도 지역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내에서 유통될 수만 있다면 곤충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이고,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농업기술원 임주라 연구사는 "아직 베리류 부산물 확보와 유통 문제, 표준 톱밥발효기술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남아있지만, 식용곤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써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잠사곤충시험장에서는 소비자 테스트 결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들은 만 아니라 생산자도 만족할 수 있는 가공식품이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리류 부산물을 이용한 꽃병이 사육기술을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남원 특산물 활용 가정간편식 창업 수료

국제한식문화재단, 등록인원 17명 중 12명... 현재 6명 창업 성공

국제한식문화재단은 남원 지역 특산물과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남원시의 지원으로 '2020 남원 특산물(농식품) 활용 맞춤형 창업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0 남원 특산물(농식품) 활용 맞춤형 창업 인력 양성 사업'은 국내 특산물 창업수요에 따른 예비창업자의 창업 특화 교육으로 창업이론, 창업실무, 창업특화기술, 경영, 멘토링 학습 및 실습 등의 과정으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으며, 등록 인원 17명 중 12명이 수료했다.

현재까지 6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2021년 1월까지 6명이 추가로 창업할 예정으로 수료자 전원이 창업하는 성과도 거뒀다. 수료식에 함께한 이환주 남원시장은 수료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면서



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식품 산업에 관심을 쏟고, 특산물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용구 도의원, 노영숙 남원시의원도 특산물(농식품)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다.

민계홍 학교장은 "수료자들에게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해 남원 특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기안전공사, 안전분야

공공기관 감사협의회

국민 안전 관련 공공기관들이 감사 역량 강화와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상임감사 함중걸)는 16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안전분야 공공기관 감사협의회를 갖고, 기관 별 자체 감사에 대한 정보 교류와 협업 방안 등에 논의했다.

9월 첫 걸음을 내디딘 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는 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해 도로교통공단, 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승강기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 에너지공단,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9개 기관 감사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승강기안전공단의 감사관제도 등 각 기관 별 감사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토론이 펼쳐졌다.

함중걸 상임감사는 "각 기관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지속적 교류를 통해 공식사회 부조리 개선과 안전사회 구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

건보 일일 명예지사장 체임

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지사장 이희규)는 지난 16일 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을 1일 명예지사장으로 초빙해 건강보험제도의 운영현황과 업무처리 및 민원상담 등의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날 양 명예지사장은 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법,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사업,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강화 등 공단 주요사업 등에 공감을 나타내고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지사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제증명 발급 등 관련 민원문무를 체험한 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